

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(토라)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(토라)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(여호수아 1:7-8).

A. 여호수아 내용과 구성

- 땅의 정복 (1-12 장)
 - 1 장에서 여호수아는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모세의 사명을 물려받음. Cf. 출애굽기 3-6 장.
 - 땅의 정복/유업은 토라이야기의 핵심. 토라 전체적인 이해에서, 땅은 더 이상 소수를 위한 부의 축적이 아닌 홈레스를 위한 안전장치. 아브라함, 이삭, 야곱 모두 떠돌이 신세(신 26:5)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주의(애굽)의 노예, 희생자(출애굽기).
 - 제의적 특성. 길갈과 출애굽 재연, 모세=> 여호수아. (5:13-15; “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<= 출 3:5.) 또한 여리고성 공격 전, 할례(5:2-7)와 유월절예식(5:10-11). 만나가 굶김(5:11-12)=> 떠돌이 신세를 면함.
 - 6 장-12 장. 성전(聖戰, holy war)으로 본 가나안 정복. 아이에서 36 명 사망. 왜? 아간(7:20-21)=> 종교적 이유(7:11-13). Cf. 11:20. 예외. 라합(2:11-12; 6:25)과 기브온 사람들(9:1-10:15; cf. 9:24)=> 민족성이 아닌 신앙/신학적 문제.
 - 신속하고 철저한 정복: 10:40; 11:16-17, 23. 그러나, ...
- 땅의 분배(13-21, 22 장)
 - 가나안 정복 불완전: 13:1-7, **13**; 15:63; 16:10; 17:12-13; **16-18**)
 - 땅의 정복활동은 주로 여리고, 세겜, 예루살렘 주변의 작은 지역에서 벌어짐 (콜린스, 151).
 - “여호수아 13-19 장에 있는 땅 분배 이야기는 일종의 중앙화된 통제를 초기 이스라엘 역사로 투사하지만 사실 그런 중앙집권은 왕국제도로 생겼을 뿐이고 요시야가 과감히 추진한 것이다”(콜린스, 162). 실질적 분배라기 보다는 이상적 프로그램. Cf. 에스겔 47:13-48:35.
- 결론: 세겜에서 언약예식(23-24 장).
 - 정체성 선언. 야훼를 섬기는 것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전제 조건 (수 24:4-6 => 1:7-8).
 - 땅을 잃은 사람을 염두에 둠(포로기 이후 편집되었다는 말)=> 수 23:13, 16.
- 문제점
 - 역사성 문제. 여리고와 아이는 13 세기 후반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곳.
 - ⇒ 여리고는 기원전 9000 년부터 사람들이 기거하던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오랜된 정착지. 청동기 후반(1500-1200 BCE)부터는 버려진 땅이었다가, 기원전 7 세기경에 다시 정착(ABD, 3:736).
 - ⇒ 아이(אֵי, ruin). 기원전 2400-1200 년에는 버려진 땅(ABD, 1:127). 아이는 히브리어로 “폐허”라는 뜻.
 - 도덕적 문제.
 - ⇒ 헤렘(חֵרֶם, herem, devoted thing)이라 불리는 파괴/말살 행위는 정복지의 남녀노소 및 동물을 모두 죽이라 명한다. 희생제사처럼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, (현대인들의 눈에) 잔인함(성서 시대 사람들에게는) 신성함으로 이해된다. 기독교 이해와는 상반됨 (마 5:38-48).
 - ⇒ 죄와 벌. 신명기 24:16 는 부모자식 간이라도 죄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다. 그럼에도 아간의 죄 때문에 36 명 모든 가족과 가축이 죽임을 당한다(여호수아 7 장=> 22:20).

B. 가나안 입성 3 가지 모델

1. 정복설(conquest model)

- 20 세기 초 미국학자들이 성서를 고고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에서 출발. 가나안 정복이 성서에 기록된 대로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.
- 그러나 중요한 단서를 고고학적으로 얻어내지 못함. 예) 여리고, 아이

- 기원전 13-11 세기 무렵 중앙고원지대에 수백 개의 작은 주거지가 생겨났다. 콜린스, 154 쪽 지도 참조.
 - 최근 학자들은 정복설(conquest model)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.
2. 이주설(immigration model)
- 독일학자 알브레히트 알트(Albrecht Alt)와 마틴 노트(Martin Noth)에 의해 주장된 가설로, 정복이 아닌 평화적 이주를 통해 가나안 입성을 제시.
 - 처음에는 중앙 산간지대처럼 한적하고 대립을 벗어난 지역에 머물다 후에 점차 평지 성읍으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추측.
3. 혁명설(revolt model)
- 조지 멘덴홀(George Mendenhall)과 노만 고트발트(Norman Gottwald)는 정착민들이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내부(內部)로부터 출발 => 사회혁명을 주장.
 - 여기서 '가나안'이란 어떤 민족을 지칭한다기 보다, 성읍을 중심한 지배체제를 통틀어 일컫는다.
 - 1888 년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아마나(Amana) 편지에 기초하여, 당시 가나안 지배층들과 하비루/하피루의 대립을 다룬다. (하비루는 사회 주변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킴). 후에 가나안 지배체제에서 궁핍한 농민들이 이스라엘과 정치적/종교적 이상을 같이했다고 이해.
- C. 신명기 사가(Deuteronomistic History)
- 마틴 노트(Martin Noth)가 1943 년 발표한 논문에서 전기 예언서(Former Prophets)에 해당하는 여호수아, 사사기, 사무엘서, 열왕기서가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 집필되었다고 주장.
 - 신명기 사관은 신명기 신학/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다.
 - 포로기 이후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나라의 멸망과 백성들의 바벨론 유배를 설명하기 위해 과거의 역사를 되집어 봄. 미래/희망에 대한 언급이 없다.
 - 주요 연설문을 통한 시대 구분
 - 청종(obedience): 여호수아 1 장(여호수아 소개), 24 장(여호수아의 죽음과 새로운 세대 등장), 사무엘상 12 장(사무엘 은퇴연설), 열왕기하 8 장(솔로몬왕의 성전봉헌기도)
 - 역사 회고: 열왕기상 17 장 (북왕국 멸망의 이유)
 - 결론적으로, 포로기는 불순종(disobedience)의 결과
 - 또 다른 가설. Dtr¹, Dtr²,
 - 두 개의 다른 잣대. 북왕국은 "여로보암의 죄"(열왕기에 14 번 등장)를 근거로. 남왕국은 "다윗의 위"(사무엘하 7 장=> 7:12 nir, 등불; 왕상 11:36; 15:4; 왕하 8:19). 요시아는 두번째 주제의 주인공. 고로 Dtr¹은 요시아왕의 종교/정치 개혁을 지지하기 위해 편집.
 -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Dtr²로 개정판 등장. 므낫세에게 모든 비난을 가함(왕하 21:10-25 => 23:26; 24:3).

생각해 보기

1. 성서와 역사, 그 차이를 극복하려면?
2. 신명기사가의 입장처럼 내게 있어 성서를 읽고, 해석하는 내 신학/신앙적 입장은? (혹은 마음에 새기는 성경구절은?)